

中國의 人間學에 관하여*

徐 遠 和**

1. 문제제기

40년대 이래로 중국대륙에서 철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련의 지다노프의 철학사에 대한 定義의 영향을 받아 철학사는 유물주의와 유심주의,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鬭爭史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의를 중국철학사에 적용시켜 중국철학사 역시 고대유물주의와 유심주의,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의 역사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고대철학자의 철학사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흔히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연관, 인식론, 변증법, 그리고 역사관이다. 그 결과 중국철학사의 서술은 왕왕 千篇一律이거나 千人一面으로 되어서 만약 어떤 철학자의 이름만 지우면 누구의 철학 사상인지도 모를 정도로 되었다. 근년에 들어서 中國哲學界는 이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철학과 서양철학은 같지 않으며 중국철학은 자신의 특수한 범주와 명제, 원리와 발전법칙을 가지므로 중국철학의 사유방식에 따라서 중국철학이 고유하게 갖는 법칙과 특징이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철학계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였다. 예를 들면 斷代史와 通史이외에 범주 중심의 연구를 착수하여 여러가지 範疇史를 집필하였다. 현재 일부의 학자들은 「인간학」이라는 각도에서 중국철학사를 새로이 고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 역시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다.

왜 「인간학」의 각도에서 중국철학사를 탐구하려고 하는가? 위에서

* 1990. 11. 22 오후 3시 인문대 교수회의실 집담회 번역

** 中國社會科學院 哲學研究所 教授

언급한 철학사를 연구하는 방법론이라는 이유 외에도 중국 전통철학 스스로가 갖는 이유도 있다. 즉 중국철학은 「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인간의 본질, 본성,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여 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전통철학을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중국대륙의 학자들은 중국 전통철학 자체의 특징에 근거해서 「인간학」이라는 각도에서 중국철학사를 고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2. 중국 「인간학」의 정의

중국철학계는 이미 「인간학」을 연구하는 문제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본인은 현재 중국철학계의 중국 「인간학」에 대한 정의와 내용, 특징 등에 대한 몇가지 기본적인 견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학자들은 「인간학」의 정의에 대하여 제각기 여러가지로 발표하였다. 그 대표적인 몇가지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 1) 중국의 「인간학」은 인간의 본질, 가치, 필요성, 이익,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인간관계 등을 연구하는 학설이다.
- 2) 중국의 「인간학」은 인간의 본질,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 인간의 정신생활, 특히 인간의 자아 완성의 길을 탐구하는 학설이다.
- 3) 중국의 「인간학」은 인간을 본위로 하는 인류의 총체적인 자아반성이다.
- 4) 중국의 「인간학」은 곧 중국의 정신현상학이다.

이상의 여러가지 정의에서 엿볼 수 있는 중국의 인간학이란 현실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본질, 인간의 가치, 인격의 이상 등을 탐구하는 학설이다.

3. 중국 「인간학」의 주요내용

중국 고대의 「인간학」의 내용은 대단히 풍부하다. 여기에서 상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인간학」에 대한 두가지 상이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중국고대의 인간학 가운데서 전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논점」을 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즉,

1) 天人論 : 천인관계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중국고대의 철인들은 학문이 천인관계를 규명하지 못하던 학문이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천인관계의 문제를 중시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명제들을 제시했다. “천지간에 사람이 귀하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은 “천지와 나란히 만물의 화육에 참여한다” 등의 명제들은 자연계에서의 인간의 숭고한 지위와 결정적인 작용을 긍정하는 것이다. 중국고대인들은 결국 「天人合一」이란 이상을 추구한 것이었다.

2) 人性論 : 인간의 실체와 본질 및 선악의 갈등 등을 탐구한다. 중국고대 철인들은 性善說, 性惡說, 性無善無惡說, 性善惡混說, 性三品說, 天地之性と 氣質之性 등의 인성이론을 제기한 바 있다.

3) 人格論 : 인간의 최고 이상인격을 탐구한다. 예를 들면 중국고대 유가지식인들은 모두 성현군자(士希賢, 賢希聖, 聖則知天)를 비롯하여 志士仁人, 忠臣孝子, 清官廉吏 등등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 최고의 이상적인 인격은 「성인」이었다.

4) 人生論 :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각종의 문제를 탐구한다. 중국고대의 철인들 역시 여러 관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義利觀, 榮辱觀, 生死觀, 善惡觀, 美醜觀, 價値觀 등이다. 그 중 가장 핵심되는 것은 가치관이다. 중국인의 가치관과 서구인의 가치관은 다르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인생의 「三不朽」를 제창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立德을, 그 다

음으로 立功과 立言을 말하였다.

5) 修養論 : 이상적 인격에 도달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예를 들어 맹자의 養氣說(浩然之氣), 李翱의 復性說, 理學家의 氣質變化說, 心學家의 致良知說, 慎獨說 등은 모두 心性의 수양공부를 설명한 것이고, 도덕의 실천을 증시하며 성현으로 통하는 大道를 밝히는데 힘쓸 것을 역설하였다.

6) 人己論 :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탐구하며, 인간이 요구하는 사회적 성격, 마땅히 이룩해야 할 사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규명한다. 예를 들어 『禮記, 禮運』편의 大同世界, 『春秋, 公羊傳』의 三統三世說, 康有爲의 『大同書』 등에서의 서술은 모두 인류의 이상사회의 조감도를 묘사한 것이다.

물론 이상의 「여섯가지 논점」은 중국고대 인간학의 전체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의 소략한 개괄에 불과하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 고대 인간학은 「人道」(天道와 상대되는 人道)의 문제만을 연구하는 것이다. 「인도」는 또 「爲人之道」와 「理人之道」로 구분된다. 「위인지도」는 「修身」, 즉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노릇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치중한다. 「리인지도」는 어떻게 「齊家, 治國, 平天下」할 것인가, 즉 민중의 관리와 국가정치의 문제에 치중한다. 전자는 소위 「內聖」의 학이고, 후자는 소위 「外王」의 학이다. 합하여 「內聖外王」의 학이다. 소위 「인간학」은 이 「내성외왕」의 학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내성외왕」은 중국 인간학의 핵심이며 가장 큰 특색이다. 물론 본인은 여기서 단지 유가만을 언급하고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4. 중국 「인간학」의 특징

어떤 학자는 중국 인간학이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1) 이론체계의 종합성 :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가 등의 각종 학설

은 인간학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 고대 인간학은 단순히 유가, 혹은 도가의 형태가 아니라 各家各派의 이론이 종합되어 유기적으로 형성된 종합체라는 것이다.

2) 집단주의의 높은 발달과 개체주의의 침체 : 중국 고대의 박애정신은 서구 근대의 박애정신과 비교해도 오히려 뛰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愛人, 兼愛, 仁道, 推恩, 民胞物與, 萬物一體 등의 주장은 모두 仁義와 박애정신으로 총만해 있다. 집단주의의 지나친 중시는, 어느 정도 개체주의의 발달을 억압하고 제한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개체주의는 개인의 방임, 개인의 향락, 개인의 安身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그릇된 길로 치달게 되고, 사회진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고대의 인간학이 「人道」의 특징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이른바 「分」을 강조하지 않고 「합」을 강조한다. 이는 天人合一(생태계의 평형), 人我合一, 公私合一, 義利合一, 이상과 현실의 合一 등으로 표현된다.

또 어떤 학자들은 동서양의 철학을 비교하여 중국의 인간학과 서양의 인간학을 구별한다. 즉 서양은 외향적이어서 타인을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자극추구를 주장한다. 반면에 중국은 내향적이어서 자아의 수양과 자연을 숭상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강조한다. 서양은 물질생활의 안락을 강조하지만 중국은 정신생활의 숭고함을 강조하여 安貧樂道를 주장한다. 서양은 영웅호걸을 숭배하지만 중국은 성인을 존경한다. 중국의 인간학의 발전과정과 법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철학계가 중국 「인간학」의 연구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 학자들의 부단한 탐색과 전진 및 창조적인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정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모색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